

---

## 공지] 국가인권위 대통령 소속 기구화 저지 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소집 건

---

2008년 1월 18일 오후 7:32

안녕하십니까?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입니다.

지독한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직 인수위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권회의를 비롯하여 몇몇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과 논평을 급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은 매우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국회 행자위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를 요청하였고, 국회 행자위는 오는 25일 행자위 회의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법사위, 그리고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지게 되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사정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장연 사무실에서 몇몇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대응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이명박 차기 정부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인권운동진영을 총력을 집결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회의록 참조).

그래서 오는 1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긴급하게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투쟁계획을 논의하여 실행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오는 1월 23일(수)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후에는 비상회의에서 논의 되는대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기구화 저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소집

일시: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 대상: 전국의 인권활동가 모두

논의 안건: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방안에 대한 대응 논의

이날 회의에는 인권회의 담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모여야 하고, 인권운동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운동진영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내놓는 방안들이라는 것이 모두 재벌규제는 풀고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 후퇴시키고,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2,30년 전 독재시대에나 있던 공안적인 발상들이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도발적인 상황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분명한 반인권 정권임을 선포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전국 인권활동가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오니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에 대한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으신 단체들은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메일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월 22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박래군 드림.

---

 **인수위국가인권대응논의.hwp**  
16K